

#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모니터링단 최종 보고서

## 불편함과 오류가 없는 자료 활성적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을 위해

### I. 오픈플랫폼 시작 창(窓)의 편의성 제안

#### 1.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시작 화면 상 개선점

##### (1) 배너의 이동 및 변화 속도 제어

지질자원연구원의 웹페이지를 열고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을 클릭하면 가장 먼저 <그림 1>과 같은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의 대형 화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여기서 직접 검색, 움직이는 배너 검색, 고정된 배너 검색 등의 방법으로 오픈플랫폼 내에서의 모든 자료 검색 작업이 시작되는데, 지난 [2기]의 최종보고서(우수작)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1)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홈페이지 재단장’ 항목과도 연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배너(banner)의 활용 편의를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웹의 홈페이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 색 점선부에는 ‘자주 찾는 데이터’에는 9 개의 배너가, 그리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는 7 개의 배너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carousels), rotating banners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그림 2> 참조), 이 이동 변화의 속도와 사라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용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림 2>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웹의 홈페이지

모든 각 배너는 약 0.5 초마다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회전하고 있는데,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클릭을 한 번쯤은 놓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A-1에서의 [해저지형도]는 일단 왼쪽으로 사라지면 약 7~8 초 후에 오른쪽에서 A-2처럼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자주 찾는 서비스’인 B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3~4 초 후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한 화면에서 전체 배너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동 움직임은 가능한 좀 더 느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배너의 색상 및 디자인의 친밀화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의 화면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의 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다 보니 흰색 부분은 너무 두드러져 보일 정도이다. 짙은 회색 계열의 기본 배경 색상도 그렇고, 검색창 외의 부분이나 배너들도 어두운 계열의 청색이거나 어두운 연두색으로 전반적으로 어둡고 칙칙하다. 아마도 배경 색상과 섞여서 더욱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다 밝은 색상과 디자인을 도입하여, 밝고 명쾌한 느낌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

디자인 면에서도 너무 딱딱한 직사각형 도형 일변도이다.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특한 도형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용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욱 친근감이 있게 느껴질 것이다.

(3) 사이트맵에서의 사이트 링크되는 명칭의 오류 수정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의 초기 화면에서 <그림 3>과 같이 사이트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링크로 연결하여 들어가 보면 제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몇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하는 이 부분은 명칭을 통일시켜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제목] ‘정보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다른 소제목들은 링크했을 때, 동일한 제목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아래 소제목들은 다른 제목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 ‘독도드론플랫폼’은 ‘독도지형정보’로
- ‘지질자원논문정보(IEG)’는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로
- ‘광물자원통계정보’는 ‘광물자원통계포털’로 변경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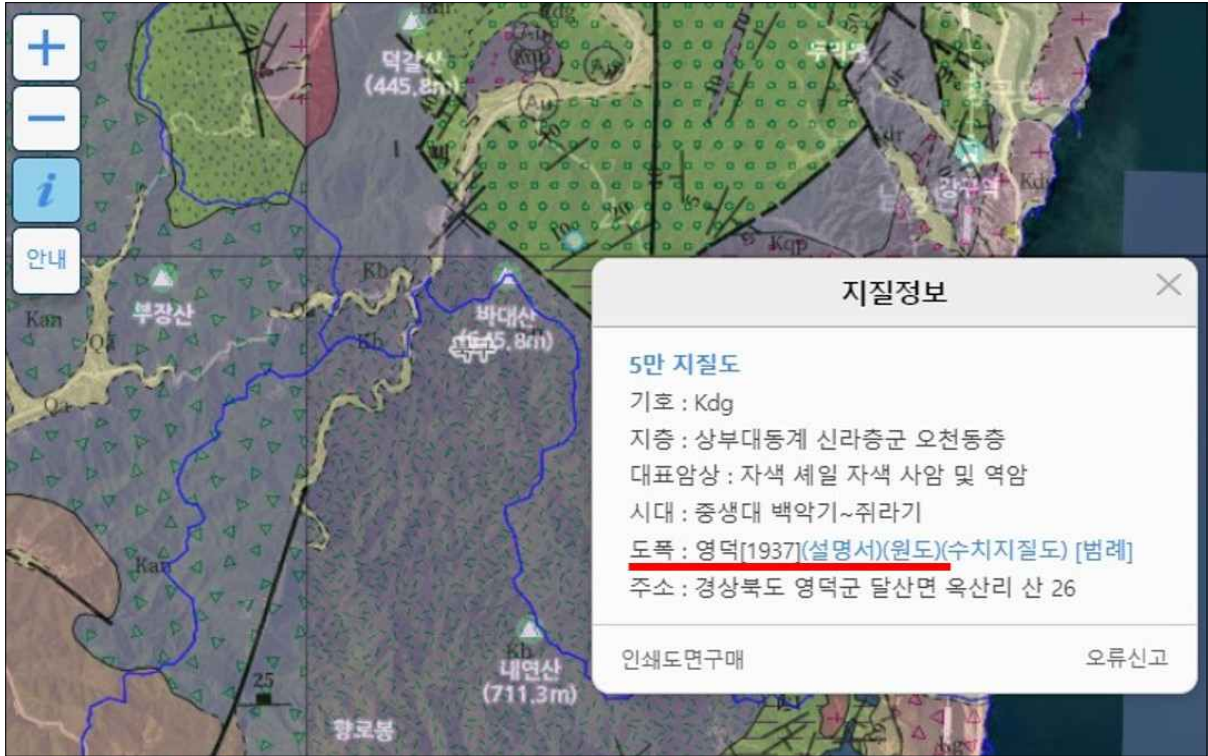
<그림 3>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웹의 사이트맵

## II. 옛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

### 1. 일제 강점기 자료의 정리 및 번역 공개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의 국토지질정보 / 지질주제도 / 지질도에서 1::5만 축척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지질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에 가서 화면 왼쪽 위의 [i (information)]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림 4>처럼 해당 지점 지질의 정보가 팝업창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설명서)(원도)(수치지질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는 경북 영덕 지역을 예로써 제시되어 있는데, ‘도폭 : 영덕[1937]’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료가 1937 년도, 즉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 간행의 자료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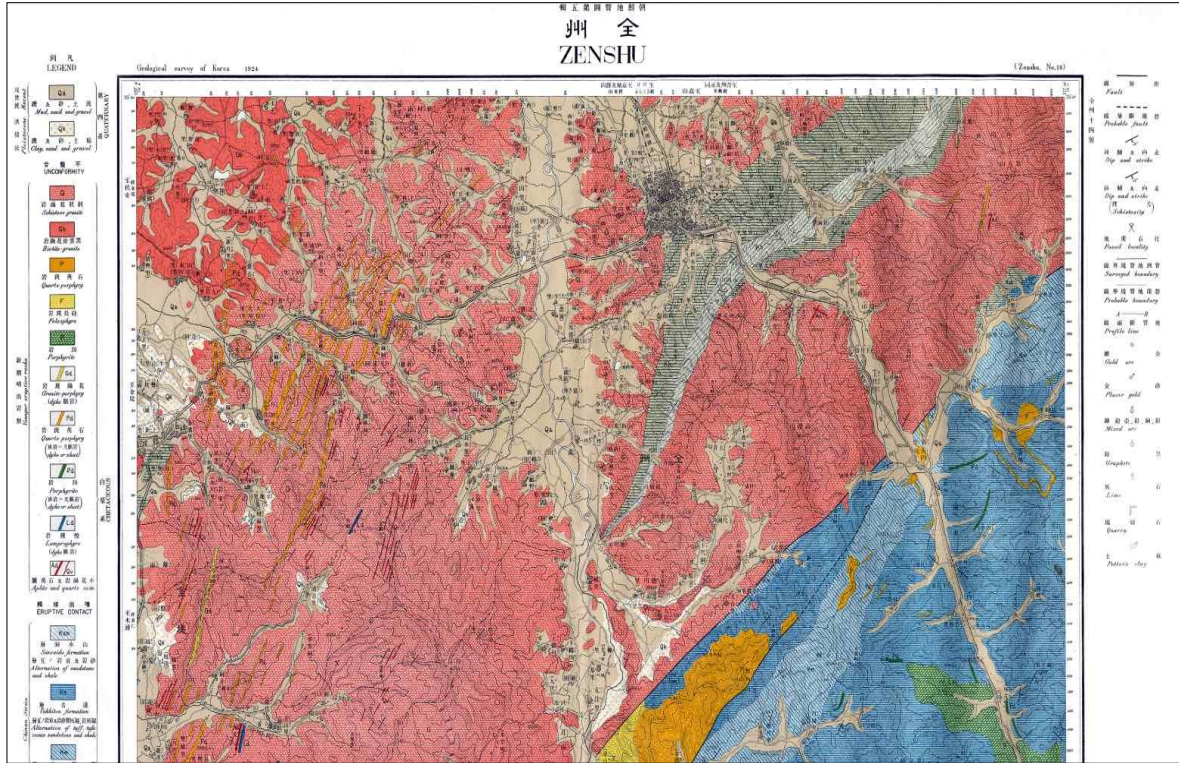


<그림 4> 영덕 지역 지질도 및 지질정보 팝업창

지질정보의 (설명서)를 다운로드해 보면, <그림 5>와 같은 일본 고어체 자료로 나타난다. 문제는 지금의 연구자들 또는 참고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림 6>의 지질 원도(여기서는 전주 지역 지질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5> 영덕 지역 지질정보 상 (설명서)



<그림 6> 전주 지역 지질정보 상 (원도)

따라서 본 작성자의 개별 조사로 파악해 본 바, 이제는 <표 1>과 같이 많이 남아 있지도 않은 희귀 자료로서 연구와 참고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를 번역하여 자료로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표 1> 작성자가 확인한 일제강점기 발간 자료에서의 지질정보 상 설명서와 원도

지질정보	해당 도폭 지역 명, 설명서 쪽수(판형)	
설명서 + 원도	1) 연일-감포 2) 경주-영천-대구-왜관 3) 영해-영덕	9 쪽 (가로판) 17 쪽 (가로판) 22 쪽 (세로판)
원도	1) 전주-진안 2) 우수영-해남 3) 부여-남포-대천-청양	



### Ⅲ. 기타 개선 및 오류 사항

#### 1.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IEG) 사이트의 오류 및 개선

##### (1) 띄어쓰기, 용어 통일 및 오류 수정 및 개선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을 통해 ‘환경지질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지질에 관련된 많은 교육적이고도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때로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놓은 매우 교육적인 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곳곳에서 눈에 띄이는 텍스트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서로 달리 쓰인 용어나 형식을 통일하고 내용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 검토 사항 >>>

[소개] 표기의 통일 필요

-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IEG (Inforcenter for Environmental Geology)
-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IEG: InforCenter for Environmental Geology)  
는 환경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헌정보] 해외문헌의 발행구분 표기 오류(Vol/Issue/Year) : 초기 검색 화면에서

- 1 : (058/01/997), 2 : (054/06/4996), 3 : (304/01/237),

[연구정보]

- ‘학교 IP’에서 학교 IP는 없고 모두 ‘개인 IP’만 소개되어 있음
- ‘이번년도 개인 IP’와 ‘이전년도 개인 IP’라고 함은 2023년을 이번년도라고 하는 건지?  
꼭 필요하다면 년도를 숫자로 기재하는 것이 옳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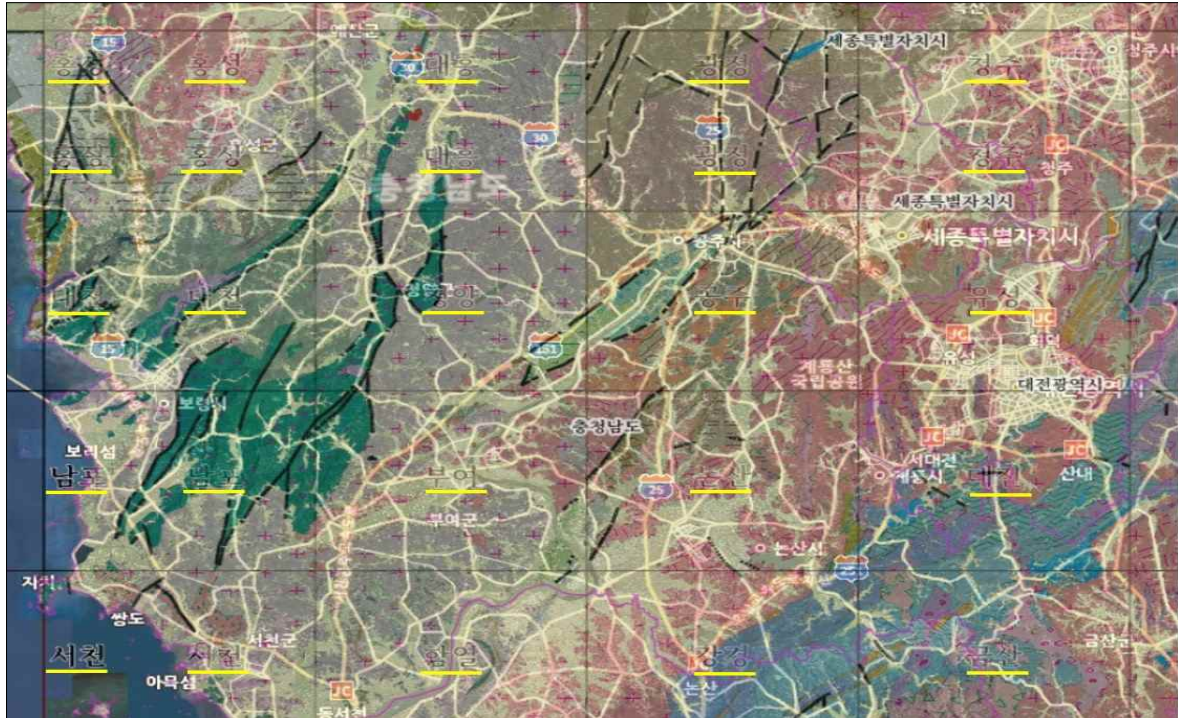
[교육마당/쉽게 풀어보는 지질학]

- 암석 / 퇴적암 :  $\text{CaCO}_3$ 는  $\text{CaCO}_3$ 로,  $\text{CaSO}_4 \cdot 2\text{H}_2\text{O}$ 는  $\text{CaSO}_4 \cdot 2\text{H}_2\text{O}$ 로
- 암석 / 화성암, 화산활동 :  $\text{SiO}_2$ 는  $\text{SiO}_2$ 로
- 지표면의 변화 / 풍화 : 그림 설명에 오류(중복)
- 지표면의 변화 / 비람에 의한 지형 : [사구] 그림 설명 누락
- 지하수와 해양 / 수문학 : 두 번째의 ‘■수문학’은 ‘■수문순환’으로
- 지하수와 해양 / 해저지형 : ‘대륙주변지’와 ‘대륙연변부’ 명칭의 통일

#### 2. 1:5만 지질도 도폭의 색인 이미지 개선

##### (1) 지질도의 도폭 색인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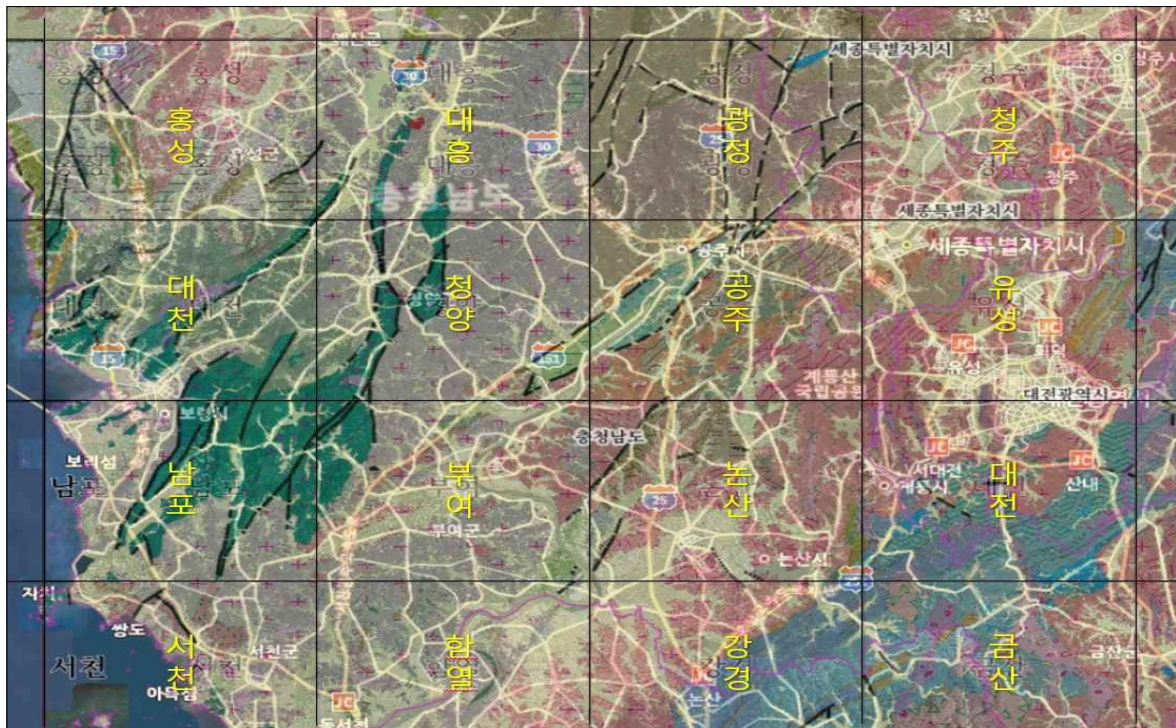
국토지질정보 / 지질주제도 / 지질도 / 1:5만 축척으로 나타나는 초기 화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지질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편리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다만 초기 화면에서 다소 다듬어 져야 할 부분은 ‘도폭명’ 부분이다. 전체 도폭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인데, 직사각형의 한 도폭 구획 속에 동일한 도폭명이 2개 내지 4개까지 중복 기재된 곳이 나타난다. <그림 7>은 그 중 충청남도 일원 지역의 이미지를 캡처한 것으로 노란색 짧은 실선은 도폭명이 흐린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지질도 색인의 도폭명 중복 예

(2) 지질도의 도폭 색인 이미지 변경 제안

<그림 7>에서 제시된 곳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너무 흐려서 잘 눈에 띄지 않는 도폭 경계선과 도폭명을 나름대로 변경해 보았다. 좀 더 변별력이 있게 하고자 하였고, 원도의 이미지를 되도록 훼손



<그림 8> 지질도 색인의 이미지 변경안 예

시키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해 보았다.

또한 원도에서 지명이 가로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는 구분될 수 있도록 도폭명은 세로쓰기를 적용하였고, 노란색 글씨에 검정 그림자를 이용 약간 두드러져 보이도록 나타내 보았다.

### 3. 자료의 통일화 개선

#### (1) 광산분포도 심벌 항목 설명의 통일

국토지질정보 / 표준심벌정보 / 광산분포도 심벌에 있어, <그림 9>와 같이 항목의 설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요구된다.



<그림 9> 광산분포도 항목 설명 (좌:표준, 우:조정 필요)

<그림 9>에서 통일화 조정이 필요한 오른쪽 항목을 살펴보면,

- 9 : '금속광물\_석(Tin) : Sn'은 '금속광물\_주석(Tin) : Sn' 으로 오류 수정
- 12 : '금속광물\_연-아연(Pb-Zn)'은 '금속광물\_연-아연(Lead-Zinc) : Pb-Zn' 으로
- 35 : '비금속광물\_운모(Mica) : Mi(질석포함)' 에서 (질석포함)이 필요한지?
- 37 : '비금속광물\_점토류(Clays) : Clays' 에서 끝의 Clays는 알파벳 3 글자 내로 약자화
- 43 : '석탄광물\_석탄(Coal)'에서 심벌 알파벳 약자 표시 누락